

추도문

에디터 송상용 선생님

홍성욱†

송상용 선생님은 편집하시는 글을 본인의 스타일로 바꾸신다. 신문에 원고를 써서 보내면 담당 기자가 신문사 스타일로 교정을 봐서 심는데, 송 선생님은 나중에 당신의 칼럼이 나온 신문 지면을 다시 선생님 스타일로 고치신다. “란든에서 열린 학회에서”를 기자가 “런던에서 열린 학회에서”로 고쳤다면, 인쇄된 신문의 “런던”을 지우고 지면의 작인 빈칸에 다시 “란든”을 적어 넣는 식이다. 읽어 보라고 톡톡 던져주시는 선생님의 신문 칼럼은 항상 이런 “송-스타일” 교정의 흔적들이 있었다.

유명한 송-스타일은 이렇다.

런던 → 란든

코아레 → 파레

베이컨 → 베이큰

엔겔스 → 엔겔스

파스퇴르 → 빠스퇴르

더 많이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난다.

†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comenius@snu.ac.kr

오래전에 송상용 선생님이 『한국과학사학회지』 편집인을 하실 때는 학회지가 늦게 나오는 적이 많았다. 원고를 붙잡고 하나하나 교정을 보시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김영식 선생님이 학회지가 늦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불평하시는 걸 들었다. 편집인이 김영식 선생님이 바뀌고 학회지는 거의 제시간에 나왔던 거 같다. 그때 송 선생님이 당신의 교정 없이 학회지가 나오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셨던 게 기억난다. “내가 교정을 봐야 하는데...”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 하시면서.

토론토 시절, 송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내 근황을 알려드리고 작성 중인 논문의 초고 등을 보내드리면, 항상 교정을 봐서 답장하시곤 했다. 1997년 10월 26일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과학전쟁”은 흥미진진하게 읽었지. 과학기술학 전체를 포괄하는 비판적인 논문인데 뒤로 읽어가면서 감탄을 거듭했어. 내 의견 덧붙일 것도 별로 없고 그저 즐겼다는 얘기만 하고 싶군. 읽어가면서 표기, 용어, 표현에 걸리는 것을 적어 보았는데 너무 늦었지만 동봉하니 참고하도록.

1998년 4월 5일에는 다시 과학전쟁을 언급하시는 편지를 보내왔다.

여기도 소규모 과학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침 어제 김환석의 재반론을 받았기에 여기 동봉해. 한몫 끼어들 용의는 없는지?

아마 『교수신문』에 내 얘기를 하셨는지, 나중에 신문사로부터 김환석-오세정의 과학전쟁 논쟁에 대해 총평을 써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송 선생님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논문을 쓴 것으로 내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다.

1998년 말 혹은 1999년 초에는 내가 책 내는 계획을 말씀드렸나 보다. 1999년 1월 22일 선생님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니.

『잡종』은 관심을 표한 사람들이 많았네. 『페미니즘』도 창비인 듯한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 문지에서도 책을 낸다고? ... 책 나오기 전에 원고 전체를 보고 싶네. 아직 시간이 많겠지.

선생님 편지를 받고 원고를 보냈다. 1999년 7월 27일에 받은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무 늦어 미안하네. 1주일을 더 끌었으니 - 큰 것만 지적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 교정을 보고 말았네. 지나치게 내 본위로 해서 불쾌할 줄 아네. 부담 느끼지 말고 참고 정도 하거나. ... 창비에서 책을 보내왔네. 날개를 열어보니 홍 교수 약력부터 틀렸기에 편집장에게 전화로 알렸지. 창비에서 한자 병기를 한 것을 보고 놀랐네.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이 비슷한 일을 한참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원고를 뜯하게 보내드리고, 다시 어느 때부터는 아예 원고를 보내드리는 것을 멈춘 거 같다. 언젠가 선생님이 이에 대해 좀 서운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대신 책이 나오면 꼬박꼬박 보내드렸다. 2020년 말에 나온 『실험실의 진화』를 드렸는데, 한참 뒤에 뵈게 됐을 때 재미있게 읽었다는 말씀만 들었다. 그래서 “이제 교정을 보지는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2주일 전, 학과의 나눔 책상에 『실험실의 진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책을 열어보니 내가 송 선생님께 드린 책이었다. 선생님의 책을 정리하면서 도서관에 기증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책들인데, 필요한 학생들이 가져가라고 놓아둔 책들 속에 있었다. 인연이 있는 책이어서 내가 들고 왔다. 그런데 책을 열어보니 책 중간에 메모지가 한 장 끼어 있었다. 1979년 과학사학회 임원 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의 뒷면에 송 선생님께서 『실험실의 진화』를 읽으시면서 교정 보신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메모가 내게 다시 돌아왔다는 기이한 인연이 신기했고, 돌아가신 송 선생님을 다시 뵈는 거 같아 기뻐고, 그런데 이미 이때 많이 쇠약해지셨는지 필체가 읽기 힘들 정도로 흘러간 것을 보고 슬펐다.